

미디어 교육으로 공동체를 만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숨은 맛집을 알리고 싶어요”**

지역언론이 알려주는 맛집 말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 대단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해서 더 멋진 내 이웃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미디어에 담겠다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단체가 주최하는 미디어교육이 많았지만 요즘은 강사로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교육을 하겠다는 주민, 마을 공동체, 기관을 도와 우리단체가 쌓아온 미디어교육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지요.

부산민언련은 미디어교육으로 강해졌습니다.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언론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시민미디어교육이고요, 마을 공동체나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으로 나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도 활발합니다.

올해도 마을신문 제작 교육, 라디오 제작 교육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자나 리포터가 돼 마을을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주민들을 보면 절로 기쁩니다.

**“국제신문은 몇 살일까요?
신문이 잘하는 일은 뭘까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변신한 ‘미모(미디어교육 모임)’는 올해도 국제신문과 함께 NIE교육(신문활용교육)을 진행합니다. 국제신문이 후원하고 우리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와 비영리 공부방을 찾아가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벌써 3년째를 맞은 NIE 교육은 아이들과 지역신문을 함께 보며 생각 주머니를 키워가고 있어요. 부산민언련은 지금, 미디어교육으로 공동체와 만나는 중입니다.

정리 복성경

부산민언련 회원이 선정하는
올해의 ‘부산민주언론상’
11월 10일까지 회원들과 시민들의
추천을 받고 심사와 투표를 거쳐
12월 송년회에서 시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공지

Contents

02 지역이슈

'좋은 친구', 생략을 기다리며

03 언론비평

지역언론의 세월호 보도

04 활동소개

조선일보 무단배포 외

05 찾아갑니다

김형진 회원/ 정유진 회원

06 추천합니다

가을에 권하는 책

07 회원활동/ 새회원소개

08 그림세상/ 고맙습니다

지역이슈&칼럼

‘좋은 친구’, 생탁을 기다리며

김주미

오지필름, 회원



▲오마이뉴스

생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건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을 통해서였다. 내 아버지 또래의 아저씨 두 분이 빨간 조끼를 입고 앉아, 방송 녹음을 위해 원고가 뚫어져라 살피던 모습이 기억 속에 선명하다. 수려한 말솜씨에 유쾌함을 잃지 않던 두 분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라디오 방송이 나간 후 신문이나 TV에 생탁과 관련된 뉴스가 있나 찾아보았지만 인터넷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의 기사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나마도 너무 간략해서 기사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려웠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면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겠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오지필름에서 짧은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생탁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생탁 장림 공장을 찾았다. 얼마 전 지었다는 으리으리한 사옥 앞으로 조합원들의 천막이 서 있었다.

소비자의 좋은 친구라 말하며 부산의 대표 막걸리로 자리 잡은 막걸리 ‘생탁’은 정작 생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 해서’였다. 우연히 보게 된 사규집에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연차수당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었다. 관계자에게 우린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따졌더니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노동자 다섯 명이 시간을 쪼개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할 노동자들을 모았다. 그렇게 노조가 만들어지고, 파업이 시작됐다.

생탁 노동자들의 휴무일은 한 달 중 딱 하루다. 그나마도 바쁘면 쉬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 일이 바빠 네 달 만에 처음 쉬적도 있다는 이야기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또 일의 특성상 술이 출하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 집이 가까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사에서 먼 거리에 사는 노동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오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 요금에 맞춰 지급되는 교통비로는 실제로 출근을 위해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탁 노동자들에게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건 별나라 이야기다. 정년이 55세로 정해져 노동자의 70%가 축탁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일요일 오후에는 식사대신 머릿수대로 딱 한 개씩의 고구마나 감자를 준다. (노동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내가 살고 있는 연도가 2014년이 맞나 싶었다. 작년엔 약 200억을 들여 신사옥을 지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구 건물에 있는 휴식 공간은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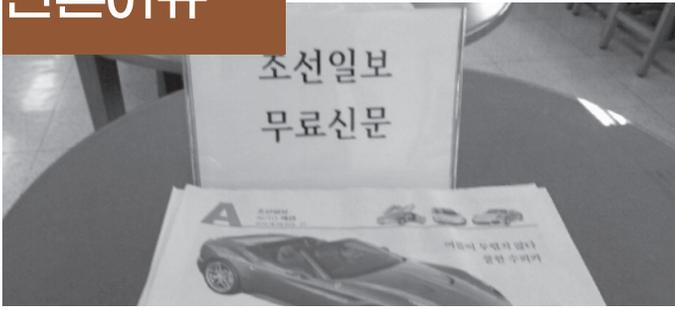
이렇게 노동자를 혹사시키며 연 매출 200억을 이뤄낸 생탁은 현재 사장이 41명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기형적인 구조는 박정희 정권의 주류정책에서 시작됐다. 부산에 흩어져 있던 양조장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양조장의 주인들이 지분을 얻어 사장이 된 것이다. 이들은 현재 매달 2,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간다. 굳이 나서지 않

아도 매달 약속된 돈이 나오니 누구하나 노조의 협상에 나서는 이가 없다. 때문에 노조에서 수차례 요구한 협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

파업은 어느새 140일을 넘겼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는 휴일이 늘어났고 파업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격려금과 임금 인상의 혜택까지 받았지만, 천막에서 돌아가며 새우잠을 자야 하는 조합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매일 거리로, 각종 관공서로 생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항의 방문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의 태도는 우유부단하고 회사는 적당한 편법을 써가며 법적 위반 사항을 감추기 바쁘다. 지금은 처음 파업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연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엔 아직 부족하다. 오지필름은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영상으로 생탁의 이야기를 전할 생각이 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우리가 즐겨 마시던 생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일해 왔는지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비가 쏟아지던 8월 말, 오랜만에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았던 장림공장에서는 멀리서부터 술 익는 냄새가 진동했다. 기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천막에서 말는 술 익는 냄새가 어떨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처음엔 생각날 때 가끔 마셨던 생탁을 이제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했다. 조합원들의 몸에 다시 생탁 냄새가 배고, 내가 만든 술이 최고다 자부하며 일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린다. 생탁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언론이슈



부산 중·고등학교에 조선일보 배포

‘진보교육감 대응 차원?’ 의혹 … 지역언론 위기 가중 우려도

6·4 전국교육감선거가 끝난 지난 6월 부산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 조선일보 30~40부가 배달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본부에 따르면 6월 교육감선거를 전후로 조선일보가 수습부 배포된 학교는 확인된 곳만 20여 곳이다.

이런 사실은 교내에 조선일보 40부가 ‘몽탕이’로 쌓여있는 걸 이상하게 본 교사의 제보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교육용’이란 안내문과 함께 도서관에 조선일보 신문터미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학교에 특정신문만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교장에게 진보·보수 등 다양한 신문을 비치하자고 제안했으나 학교장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

조선일보의 배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육감 선거 직후인 6월 이후부터 집중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참패한 뒤 조선일보가 전사적으로 신문 배포에 집중한 정황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과거에도 학교에 신문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갖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신문 대량배포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측은 일련의 무료신문 배포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료 신문 배포 활동은 이전부터 해왔고, 교육용 신문을 제공함으로써 신문을 보지 않는 젊은 세대를 독자로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신문이 학교를 상대로 정치적 조기교육을 시도한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코카콜라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콜라를 주며 입맛을 길들였듯이 어려서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접근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교사들은 진정한 신문교육을 위해서라면 진보·보수·지역언론 등 다양한 신문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신문 입장에서조차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막강한 자본과 영향력으로 미래의 독자를 끌어 모으면 일방적 논조는 확산되고 지역신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단체는 전교조부산지부 등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신문배포와 신문교육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민언련 활동단신



8월 미디어특강 <슬기로운 해법> 상영회

8월 26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부산민언련 8월 미디어특강으로 <슬기로운 해법>을 상영하고 영화를 만든 태준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슬기로운 해법>은 정치·경제 권력과 사회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그들을 호위하고, 때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휘두르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 다큐였다. 특히 스스로 권력이 된 ‘조중동’은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전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아세울 힘이 있다.

상영회에는 4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영화의 ‘불균형’을 질문하기도, 조중동의 폐해를 끊어낼 방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도 했다.

태준식 감독은 전체 언론의 ‘불균형’을 보여주려고 했으며, 시민 스스로 언론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상영회는 언론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잘생겼다 (시선360)"

부산민언련 모니터반이 부산 지상파 TV 시사 프로그램 최고로 꼽은 <시선360>을 격려하러 7월28일 남천동 KBS부산총국을 찾았다. 지난 7월 지역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한 결과였다. 이날 제작진을 대표해 장충순PD를 만나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제작자의 이야기도 들었다. 장충순PD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왜곡 언론문제 알리려 추석귀향 선전전

9월 5일 부산역에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세월호 참사 추석 특별판 소책자를 나눠드렸다. 세월호 참사의 풀리지 않는 의혹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쟁점, 세월호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이를 왜곡하는 언론문제를 담은 책자였다.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한 활동으로 부산세월호대책위가 진행했고 우리단체에서는 사무국과 최지수 회원이 함께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언론에 대한 '감시'와 '연대' 둘 다 놓치지 않길
김형진 회원

김형진 회원님은 요즘 우리 부산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석준 교육감 후보(현재 부산시 교육감)를 도와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교육청 공보관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김형진 회원은 부산대학교 홍보담당관으로 20년 6개월 일하다가 재직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와 연을 맺게 되었고, 그 전에는 부산매일신문에서 11년 6개월 동안 기자생활을 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 전에 부산민언련 회원으로 가입했다. 현업에 몰두하다보

니 적극적으로 얼굴을 비추지 못해 아쉬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더욱 바빠져 마음만큼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단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급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불안해하는 이들도 많으며,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합리적이며 점진적, 지속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언론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최전선에서 김형진 회원은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 직장인 대학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것과

시 교육청의 공보 활동은 유사한 영역도 있지만 복잡한 구조 측면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고 자칫 오해의 측면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감각 있게 조절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신경쓰는다고 한다. 부산민언련이 언론 모니터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비판적인 감시와 유대, 견제와 협조의 균형을 이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터뷰 내내 김형진 회원은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훔쳤다. 계속 전화가 울리기도 했다. 그가 바쁘다 말한 것이 실감나는 상황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부산민언련이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불량회원이 되겠지만 계속 성원의 박수를 보내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하는 김형진 회원. “소주 없이 소통 없다(?)”는 명언을 해주시는데...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리 장현수

정유진 회원은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고 다큐를 만들고 싶어한다. 지난 해 가을, 유진씨의 꿈을 알고 있던 친구가 소개해줘 부산MBC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 제작지원단에 참여하게 됐고, 제작 활동에서 만난 복성경 부대표의 권유로 우리단체 모니터모임에 나왔고, 회원가입으로 이어졌다.

정유진 회원은 타지 출신이라 오히려 부산에 대해,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제작지원단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제작지원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 국민대행진이었는데 연산동에서 시작해 당감동을 거쳐 서면까지 행진하는 코스였다. 유진 씨에게 행사에 참여해 난생 처음 거리 행진과 집회,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한 것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았다고 한다. 공동체를 위해 또 언론을 위해 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된 경험이고 큰 자극이 됐다고도 한다. 지역언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민언련
정유진 회원

모니터는 지난해부터 참여했고 지방선거 모니터도 함께했는데 여전히 좀 어렵지만 지역 사회를 알게되고 배울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 올해 4월 부산민언련 20주년 기념식에도 참여했는데, 어르신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했는데도 어렵지 않고 잘 통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부산민언련에 대한 정보나 활동 소개가 좀더 많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다. 검색만으로 부

산민언련 활동이 잘 걸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우리 사회에 대한 궁금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고 알리려 노력하는 씩씩한 정유진 회원이 부산민언련 활동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길 응원한다.

정리 박정희

‘슬기로운 해법’ 상영하는 날

8월 26일 <슬기로운 해법> 상영회에 참여한 신재희 회원님이 행사소감을 보내 주셨습니다.

편집자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상영회.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이 두 배가 된다. ‘슬기로운 해법’이 상영하는 날 바쁘게 할 일을 끝내고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가고 싶다는 딸의 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일을 마무리하고 지인가족과 딸과 함께 서둘러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출발했다. 여유있게 도착해 배고픔을 커피와 챙겨주신 맛있는 망개떡으로 달래고 있을 즈음 상영시간은 다가오는데 관람객이 적어 빈 자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고생하신 민언련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운한 마음도 잠시 영화는 상영되고 영화 도중 딸은 공책에 질문을 하고 해결하면 바른 자세로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옆 눈으로 힐끔힐끔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즐기고 나니까 감독님과 대화 시간이 돌아오고 딸은 영화를 보고 놀라고, 관람객이 젊은층이 더 많아서 놀라고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질문 하는 내용과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자신의 무지함에 놀라고, 딸이 놀라움의 연속인 세상의 한 면을 접하면서 진지한 이야기 속에서 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놀라고, 기쁨이 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딸과 두 손을 맞잡고 양치기 소년에게 속지 않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위해 개념 있는 너와 내가 되어보자고 약속했다.



이 가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책

<대한국민현대사> 고태경 / 푸른숲

글쓴이의 아버지는 신문 스크랩을 했다. 간간이 메모도 동반했는데 수십년이 지난 뒤, 그것은 또 하나의 역사책이 되었다.

고바우 영감을 스크랩하는 일이 많았고 아버지는 신문 옆에 간간이 시를 써 덧 붙였다. 그 속엔 아버지의 개인사도 있고, 7-80년대 역사도 오롯이 담겨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생각한다. 지금의 이 사실이 후대에 어떻게 남겨질까.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생각한다. 내 생각의 좌표는 역사의 흐름에서 어디쯤 일까.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잘 구현해냈다.

글쓴이의 가정사와 굴곡많은 현대사가 고루 뒤섞여있다. 역사속에 한 개인의 삶이 건져난다. 신문을 좋아하는 부산민언련 식구들이 읽으면 재밌을 책이다. 추천한다.

조소희 회원

<인생의 품격> 장사오형, 한문 / 글담출판사

북경대 인문학 1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들의 채근담. 동양(정확하게는 중국) 고전의 현대적 해석이 깊어가는 가을 사색의 깊이를 더해줄 듯.

이상기 회원

<투명인간> 성석제 / 창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믿고 힘겹게, 그렇지만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결국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세상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지금 이 곳 쌍용자동차, 밀양송전탑, 현대차비정규직, 재능교육, 제주강정마을, 콜트.콜텍... 그리고 세월호... 그들이 아직 여기 있는데 세상은 그만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라 한다. 그들이 투명인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함께 존재하고 느끼고 있다고 말해주자.

이정미 회원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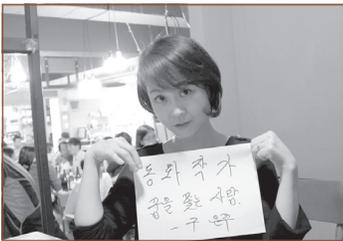
100살 생일파티 날 요양원 창문을 넘어 도망친 ‘알란’의 이야기.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낭비’(노래 ‘lost stars’의 가사 중 일부)라는 노래가사처럼 지나간 청춘이 더할 나위 없이 아쉽고, 다가올 노년이 두려운 나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준 소설.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이런 엉뚱한 ‘진실(?)’이 숨겨있다니... 터무니 없는 상상에 터지는 웃음은 덤.

조재형 회원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김고은 회원님



구은주 회원님

김고은 님이 회원이 되셨습니다. 지난해 가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 교육을 받고 복성경 부대표의 권유로 모니터 모임을 하게 된 김고은 님은 6.4 지방선거 모니터 활동을 하며 우리단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재는 모니터 모임의 핵심 인자로 활동 중이고요, 퍼블릭액세스 활동에도 열심히 합니다. 20주년 맞은 부산민언련을 더욱 청년답게 만드는 김고은 신입회원님~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남인숙 님도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남인숙 님은 미디어교육 강사로, 시민 라디오 제작단으로, 팟캐스트 제작자로 활동 중인 열혈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복성경 부대표의 권유로 회원이 되어 준 남인숙 신입회원님은 퍼블릭액세스는 물론 시민 미디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일과 생활에 대한 공감을 나누기 위해 '여성공감톡톡'이라는 팟캐스트도 시작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팟빵 앱으로 만나 보십시오. 환영합니다. ^^

김정환 님이 회원이 되셨습니다. 부산YWCA 김정환 시민사업국을 맡아 YWCA의 소비자운동, 환경, 탈핵 등 부산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또 KBS부산 시청자위원으로 부산 시청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체와는 부산시민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연대해 왔는데요, 여러 연대 요청에 언제나 따뜻하게 응해주셨고 선뜻 회원가입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여성의 교육과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은주 님이 회원이 되셨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 장현수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사무국 과도 우연한 자리에서 함께 만났는데 우리 단체의 취지와 활동을 듣고 후원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구은주 님은 현재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

송상헌 회원님도 장현수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회원이 되셨습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고등학교 친구인 장현수 님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단체 가입으로 사회 문제를 좀더 공부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송상헌 회원님, 다양한 강좌나 회원 활동에서 빛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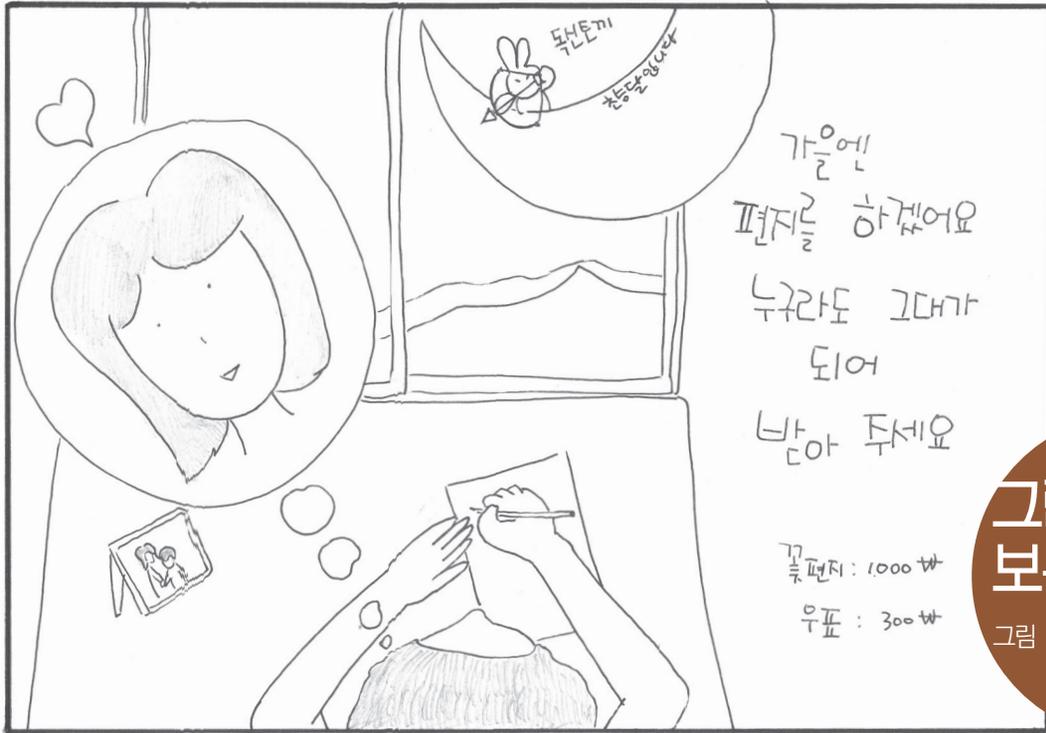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최동섭 회원님이 8월 부산YMCA 사무국장에서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 사회에 각종 현안에 함께해왔는데요 이제 반송지역 공동체와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겠습니다. 최동섭 님은 부산MBC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배일 회원님이 감독한 <밀양아리랑>이 DMZ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할매들과 함께하며 밀양싸움을 영화로 알리기 위해 애써왔는데, 수상으로 이어졌네요. 축하합니다!



<밀양아리랑>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 류창섭

고맙습니다

2014년 7,8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가경옥 강동민 강승화 강아란 강필희 공진성 구자문 구지영 권영란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준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철 김동기 김명혜 김병국 김석준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 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영민 김영준 김용범 김 옥 김유진 김은민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주만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차름 김철기 김태진 김태훈 김하원 김해몽 김현지 김형욱 김형진 김형천 김형철 김홍식 남정숙 남태수 노무법나라레 노정현 노현희 도상형 독고지은 류광종 류유희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정임 문종대 문지용 문진호 문창현 민은희 박동혁 박봉환 박상조 박소영 박순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태순 박홍원 배일진 배재한 배혜래 백미화 복성경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손영호 손주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병률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지민 안지숙 엄상준 염창현 예종일 오정무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옥서연 왕수봉 원경덕 유시호 유원경 유행현 윤대원 윤명숙 윤순정 윤영태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동일 이두원 이명근 이명숙 이이미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셋별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환 이영우 이오상 이원구 이원규 이일수 이지윤 이진규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순평 임언수 임윤희 임은정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선화 장익진 장현수 장흥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숙희 정순영 정승훈 정영근 정우윤 정유진 정은주 정은해 정자연 정재성 정재훈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범수 조보교파 조봉권 조소희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지창준 차동엽 차진구 채 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지수 최진혁 최태경 최한주 최환웅 하미정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은영 허지안 홍유선 황대진 황상현 황영주 황지연

연회비 납부해주신 회원

김남원, 김상현, 김정우, 양승동, 이범수, 이진로, 부산MBC 노동조합, 복성경

부산민언련은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미디어토리**
meditory

영화제작 인쇄디자인 커뮤니티미디어지원

www.meditory.net
tel. 070.4349.0910
email. meditory@meditory.net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세요!

1994년부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어온 부산민언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은 그 사회의 거물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 시작은 참여와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021-01-054360-1 (예금주 부산민언련)